

유명하지 않아도 ... 제주는 역시! 탐나도다



제주도 '숨은 스팟'



새연교 일몰.



탐라해상 풍력단지 야경.



탐나라공화국 하늘등대

여행을 떠나는 것은 익숙함보다 새로움을 느끼기 위한 경우가 많다. 색다른 것을 소비하고 경험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나만의 여행지가 된다. 최근 '제주는 비싸다'고 말하며 외면하는 이들이 있다. '대한민국 1등 관광지' 제주 여행이 뻘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색다른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공간과 자연이 넘치는 곳이 바로 제주도. 스토리를 품고 여행객의 입맛과 눈맛을 사로잡는 숨은 스팟들을 소개해본다.

▲제주의 맛...스토리가 있는 착한 맛집=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보면 매일 제주 핫플레이스와 신상 맛집이 넘쳐흐른다. 새로운 장소가 흥수처럼 넘쳐나는 이때, 비하인드 이야기가 담긴 맛집 곳곳을 '도장깨기' 하는 것은 또 다른 즐거움을 준다.

제주관광공사는 제주 착한가격업소와 아너 소사이어티가 운영하는 식당 등을 '스토리가 있는 착한 맛집'으로 선정했다.

먼저 고물가 시대에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물가 안정에 도움을 주는 식당들이 제주 전역에 퍼져 있는데 바로 제주 착한가격업소다.

착한가격업소(한식 업종)는 이달 기준 제주시 163곳, 서귀포시 59곳 등 모두 222곳에 이른다.

이들 식당은 단순히 가격만 착한 것은 아니다. 가격뿐 아니라 위생 청결 기준과 기타 서비스 기준까지 모두 다 충족해야 착한가격업소로 선정되는 만큼 제주도 지사의 이름을 걸고 추천된 맛집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기부로 맛과 제주를 가지있게 만드는 곳들이 있다. 바로 아너 소사이어티(Honor Society)가 입자들이 운영하는 맛집들이다.

아너 소사이어티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 열매)가 설립한 고액기부자 클럽으로, 성실함과 손맛으로 제주 사랑의 열매를 통해 사회에 나눔을 전파하는 식당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음식을 통해 나눔의 손맛과 사장님의 온정을 느껴볼 수 있다. 제주 아너소사이어티 5호 회원 박종선씨가 운영하는 태선갈비, 부부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이 운영하는 돈사돈, 제주 아너소사이어티 48호 회원이 운영하는 델몬도 등이 대표적이다.

이와 함께 서귀포시 안덕면에 위치한 '봉you' 식당은 '돈쫄내고' 싶은 식당 중 하나다. '돈쫄내다'는 돈과 혼쫄내다를 합친 말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한 기업에 착한 소비로 보답하겠다는 의미로 쓰이는 신조어다.

'봉you'는 지난 4월 3일 정기 휴일임에도 문을 열고 제주의 아픔인 4:3을 추모하며 대표 메뉴를 무료로 제공했다. '봉you'의 추모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2년 이태원 참사 애도 기간의 마지막 날에도, 봉유는 음식을 무료로 제공하며 손님들과 슬픔을 나눴다.

▲제주의 맛...눈맛을 사로잡는 새로운 제주 스팟
제주에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하는 새로운 장소가 탄생했다. '제주의 밤은 볼 것 없다'라 말만 있는 것처럼 휘황찬란한 야경이, 운치 있는 야경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친환경이라는 말이 달라진다. 쓰임을 다한 물건이 제주 자연에 색다른 볼거리를 만들어냈다.

탐라해상풍력단지=제주도의 해안도로를 따라 이동하다 보면 심심치 않게 풍차가 보인다. 바람 많은 제주도에서 풍력에너지를 얻기 위해 돌아가는 풍차가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은 그야말로 이색적이다. 신창 풍차 해안도로, 김녕-월정 해안도로, 그리고 녹산로를 따라가다 보면 보이는 가시리 풍력발전소까지... 이미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는 풍차 스팟들이 있다. 하지만 해가 지면 그 풍경을 즐길 수 없다는 건 아쉬운 점이다.

그런데 최근 해가 진 어두운 밤에 가도 풍차와 함께 야경을 즐길 수 있는 장소가 생겼다. 국내 최초로 한경면 두모리와 금동리 탐라해상풍력단지 해상풍력발전기 10기에 조명을 달아 제주 밤바다를 형형색색 파노라마식으로 밝혀낸 것. 일몰 후 밤 10시까지 바다를 수놓은 조명들은 풍력발전의 잉여전력과 전기차 사용 후 폐배터리를 활용한 조명인 만큼 친환경적인 요소를 갖춘 야간관광지라는 점에서 더 매력적이다.

탐나라공화국=상상 속 이상을 현실에서 구현해내려는 작은 공화국이 제주에 생겼다. 이곳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약하고 여권을 발부받아야 하니, 제주 안에 또 다른 작은 국가를 방문하는 기분이 든다. 공화국 안은 생태와 예술이 만나 어우러진 문화공간으로 소위 '여행자가 가꾸는 여행지'다. 전국에 버려진 한채 30만권을 보관한 한채도서관과 중문관광단지 내 최초의 풍력발전기를 업사이클링해 만든 바람탑과 하늘 등대 등 쓰레기만으로 여겨졌던 물건들이 저마다 역할을 하며 공화국을 구성한다.

인문투어와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한 이곳은 전국 50여 개 기관과 협력해 교육과 체험이 가능한 교육관광지이자 도내 친환경 관광지로 떠오르고 있다.

▲제주의 흥... 제주 인증샷 명소

최근 일본 여행이 늘면서 후지산을 배경으로 한 사진 명소가 인기를 끌고 있다. 제주 역시 해외 부럽지 않은 한라산 인증샷 명소가 있다. 낮에는 한라산을, 밤에는 밤바다를 한번에 즐길 수 있는 인증샷 명소를 추천해본다.

위미웨이=제주 한 가운데에 우뚝 솟은 한라산은 보는 방향에 따라 그 웅장한 자태가 달라진다. 한라산의 역동적인 모습을 어느 방향에서 바라봐도 아름답지만, 최근 위미에 생긴 위미웨이에서 바라보면 한라산의 모습은 최근 SNS에서 화제인 후지산을 배경으로 한 사진보다 더 아름답다.

제주 올레길 5코스를 걸으며 위미웨이를 건너면서 바라본 한라산은 마치 한라산이 산 아래마을을 품고 있는 듯한 모양새이다. 낮에는 한라산을 바라보며 위미웨이를 즐길 수 있고, 밤이면 다리를 수놓은 조명 덕분에 아름다운 야경을 구경할 수 있다. 다리를 올라가는 데에 계단이 없어 무장애관광에도 적합한 제주의 새로운 관광 스팟이다.

새연교=천지연 폭포를 구경하고 바닷가 쪽으로 걷다 보면 새섬과 연결된 새연교가 있다. 바깥던 마음을 내려놓고 다리를 걸으며 바라본 서귀포의 모습은 낯설 것이다. 밤에 조명이 켜지면 마치 두바이의 버즈 알라랍과 비슷해 두바이가 익숙한 외국인 관광객에게 익숙한 듯 새로운 느낌을 줄 것이다. 서귀포시 원도심을 걷는 코스인 '하영올레'를 따라 걸어도 새연교에 도착할 수 있다.

자세한 정보는 비짓제주(visitjeju.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주일보 진주리 기자·사진 제공=제주관광공사



김녕-월정 해안도로 등 줄지은 풍차 이색 풍경
위미웨이서 한라산 조망...새연교서 낙조 감상
탐나라공화국, 생태·예술 어울린 친환경 관광지
관람료 없는 명소·착한가격 자랑하는 맛집 즐비
착한 가격 음식점, 제주시·서귀포 222곳 선정



'봉you' 돈까스



현옥식당 돼지 두루치기